

제10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9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발표자: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이사장)
김경수(청운대학교 교수)
성주현(경기대학교 교수)
정을경(충남역사문화 연구원)



- 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오전10시
- 장소 : 금산다락원 소강당

사단
법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0회 금산동학농민혁명 및
제9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 발행일: 2013년 12월 13일
- 발행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동 복
(h.p:010-9335-3634)
- 발행처: 금산인쇄사 (☎ 041-753-5148)

순 서

◆ 발간사(금산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3
◆ 축 사(금산군수 박동철)	4
◆ 축 사(금산군의회의장 김복만)	5
◆ 축 사(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	6
◆ 제9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	
<주제 1> 새로쓰는 동학농민혁명사	
-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 이사장)	7
<주제 2> 명제 윤증과 금산	
- 김경수(청운대 교수)	8
<주제 3> 일제 강점기 금산지역 교육활동	
- 성주현(경기대 교수)	18
<주제 4> 금산동학농민혁명 연구사 정리와 연구 쟁점	
- 정을경(충남역사연구원 연구원)	29

발 간 사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1894년의 갑오년이 두번째로 맞는 19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로 갑오동학란이란 명칭부터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이란 명칭으로 험란한 역사를 거처온 동학농민혁명이 아직도 오류된 동학농민혁명이 백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고창, 전봉준이 주류로 동학농민혁명사가 주체적으로 왜곡되어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동학농민혁명사가 발굴이 시작 됨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최초“금산지역동학농민군”이 “10개 폐정개혁승인을 정부로부터 받고, 꺼져가는 고부 민란의 실패를 되살리기 위해 ”무장“에 지원 백산의 동학농민혁명전쟁을 선언 하였습니다.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이 봉기때부터 전주성 함락까지가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이고,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의 공적입니다.

군민여러분! 금산동학농민혁명사를 금산군민 모두가 동학혁명을 바로알고 오류된 동학사가 수정되고 금산동학농민혁명사가 바로잡혀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날까지 금산군민들께서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산의 “의로움”의 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는 한국사에서 굵직한 인물, 사건들이 발굴 금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세워 왔습니다.

금산인의 자부심과 긍지는 미래의 금산인의 모습이 되게 다같이 노력해야하겠습니다.

2013. 12. 13.

(사)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동 복

축 사

동학농민혁명은 독일 농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중국 태평천국혁명과 함께 세계 4대 민주혁명으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탐관오리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인권평등과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일어난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간직해야하겠습니다

과거의 존재한 사람과 일들에 누군가의 노력이 없다면 역사는 무색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정체성 확립에도 사소해 질 것입니다.

오늘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금산동학 정신의 의로움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려 이동복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비롯한 연구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소비물자 대부분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은 일년내내 농사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힘든 삶 속에 가난과 신분차별 지배계층의 핍박 등 애달픈 상황을 벗어나고자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용기는 목숨을 걸고 지킨 인권과 애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한마디로 정체성 확립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선택이 역사가 될 것이기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산지역 동학혁명 학술발표로 뜻 깊은 12월을 보내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새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3.

금 산 군 수

축 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의 굴절 속에서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뜻을 바로 세우고자 오늘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며, 오늘의 학술발표회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이동복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고장 금산에 오신 청운대학교 김경수 교수님, 경기대학교 성주현 교수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을경 연구원님, 금산향토문화연구원 이동복 원장님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금산!

동학혁명운동의 역사를 고증하고 연구하여 금산이 동학농민운동의 성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학계의 학문적인 규명을 통해 금산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앞으로도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3.

금 산 군 의 회 의 장

축 사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그 가르침을 새길 때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발표회는 금산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금산인의 '의로움'을 세우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생백일장대회 시상식과 함께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 전 대둔산에서 동학군 최후의 항전지 기념 풋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오천 년 우리의 역사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농민들의 열망이 맺힌 치열하고 숭고한 삶의 역사입니다.

이에 금산교육 가족 모두는 '금산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제일 먼저 봉기하였으며 최후까지 항전하였다'는 사실을 본 학술발표회에서 고증되고 널리 홍보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곳곳한 의로움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선 고장입니다.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금산의 울곧은 역사를 조명함에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질 때, 금산의 학생들이 선조들을 좇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빛나는 금산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회를 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복 이사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11. 20.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회 원

새로 쓰는 동학농민혁명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서장옥”선생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주동으로 이룬 “동학농민혁명전쟁”입니다.

금산향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 동 복

그저께 어제 오늘도 아니고 내년이면 120년이 되는 갑오년 인데...

1894년 3월 8일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

월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서포의 두령 서장옥 선생의 지휘로 동도소 통문으로 폐정개혁 10개조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13일 고부 전봉준의 꺼져버린 동학농민혁명전쟁을 이르켜 내기 위해서 무장, 백산으로 달려가 백산 하늘아래 동도대장의 깃발 휘날리며 동학농민혁명 전쟁을 선언케하고 전라 감영군의 동학농민혁명군 토벌 소식에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 4~5만명이 부안에 향해 달려가 연합군과 합세 4월 7일 황토현전투에서 완승하고 또한 전라남쪽 7개군현을 점령 하여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명군!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을 시작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우금치와 공산성과 청주성에서 대둔산 투쟁을 끝으로 이땅의 백성들 핍박(逼迫)과 배 고품을 견지겠다고, 척왜양 소리 높이며,

피흘리며 목숨바친 충청도 동학혁명군들의 영혼은 하늘에 흔적없이 떠돌고 계시는데 ..

120년이 되어가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사는 고부 전봉준만 있으니 피흘리고 목숨바친 그 영혼들께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들은 그분들께 후손들로서 어떻게 보답하는 과제가 있겠습니까?

오류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충청도 동남부 동학농민혁명군 전라도 동북부 동학혁명군 (금산지역 연합 동학농민혁명군)의 영혼들께 오류된 동학농민혁명사를 바로잡아 “새로쓴 동학농민혁명사”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들레 꽃 씨앗 뿌리듯이 힘을 합쳐 앙금진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들의 영혼께 올립시다.

명재 윤증과 금산, 그의 실학

김 경 수(청운대 교양학부)

목 차

1. 머리말
2. 명재의 가계와 학통
3. 명재의 실학사상
4. 맺음말

1. 머리말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활동이 배제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학은 문학, 철학과 함께 인문학의 기초 영역을 형성한다. 이는 인간의 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란 없으며, 역사는 인간의 활동에서 출발한다는 명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어느 면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생애와 활동, 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그 인물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구국항쟁과 연관되거나,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국의 와중에 중요한 변동 요인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명재 윤증(尹拯, 1629~1714)이 살았던 시기 역시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극심하게 전개되었던 환국기였다는 점, 그의 언행에 따라 정국이 급변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된다. 그의 정치적 생애는 주자학적 명분론 체계의 변혁이 요구되는 17세기 중·후기와 18세기 초에 해당되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의 5대 86년에 걸쳐 있다. 당쟁이 가장 극심했던 숙종조에 정승에 제수되고,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어 말년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예를 누렸던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외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명재의 생애는 아버지 윤선거의 강화도 탈출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강도지사를 통해 표출된 윤선거와 송시열의 갈등은 윤희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반목하였고, 그 영향은 명재에게 그대로 미쳤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강도지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명재로서는 흡족하지 않은 묘갈명을 찬술해 준 스승 송시열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례원류』의 찬술 여부를 두고는 또 다른 스승 유계와 반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조로부터 경종조까지 역대 군주들은 과거시험 한 번 보지 않았던, 명재를 정계에 등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벼슬을 제수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한 번도 조정에 나가지 않았지만 만년에는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 등 최고위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명재는 벼슬을 한사코 고사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조선 역사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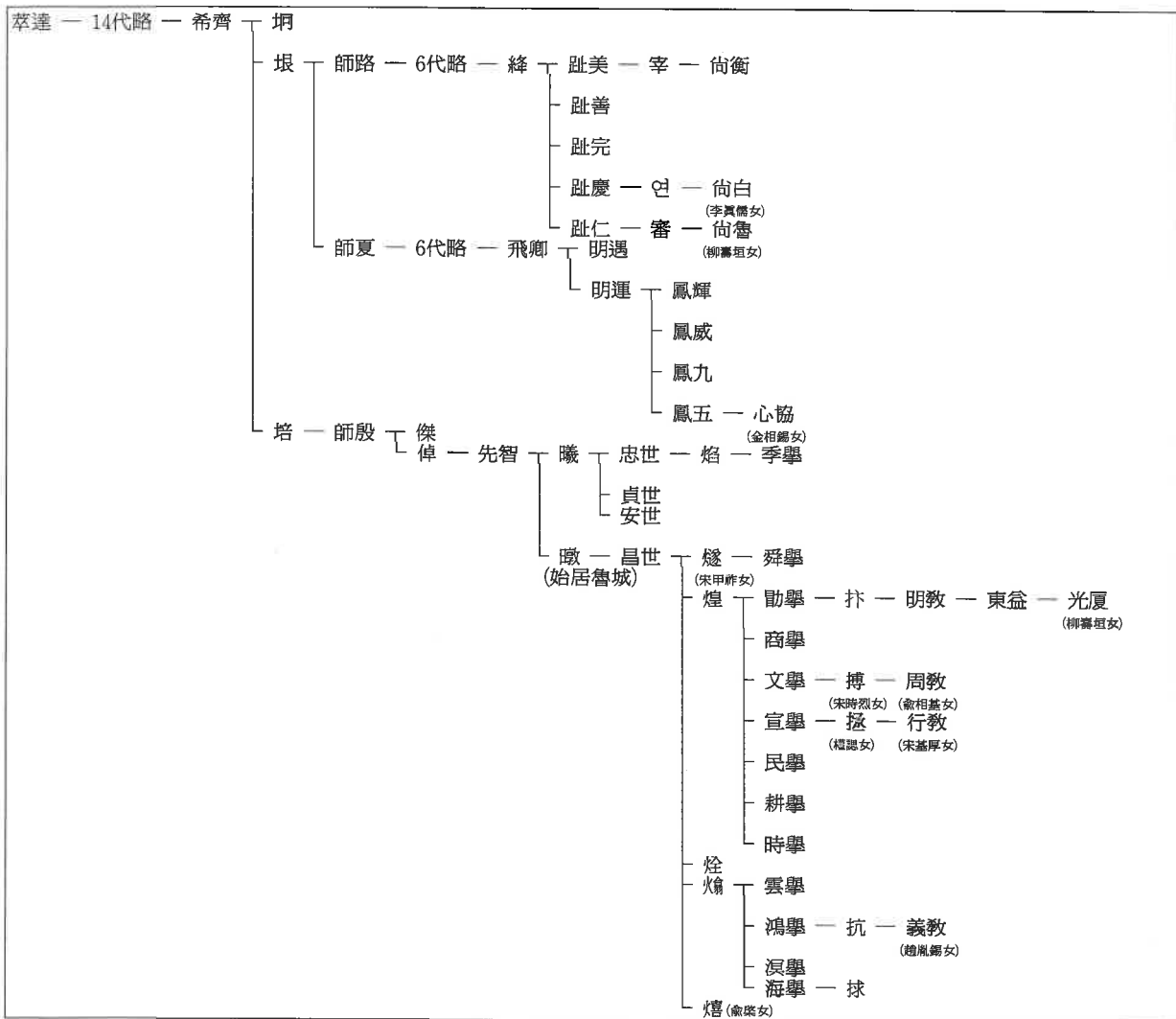
직 상소를 가장 많이 올린 인물 중 한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명문에서 태어났지만 불우했던 소년 시절과 평탄치 않은 정치적 생애를 마친 명재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및 현대적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명재와 금산지역의 연관성, 그리고 그의 사상 중 실학사상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재의 가계와 학통

명재 윤증은 1629년(인조 7)에 서울 정선방(貞善坊) 대묘동(大墓洞)의 외가에서 아버지 윤선거와 어머니 공주 이씨(李長白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대사간을 역임한 윤항인데, 그는 기호학파의 거두인 우계 성혼의 사위였다. 따라서 윤증은 성혼의 외증손이 되며, 이는 후일 명재 학맥의 연원을 성혼에 연결짓는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먼저 그의 가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파평 윤씨 가계도



1) 명재의 실학사상에 대해서는 충남대 유학연구소의 특집호(『유학연구 -명재 윤증 특집호-』5, 1997)와 김수태의 글(「윤증의 학문과 실학」, 『유학연구』) 참조.

명재의 선대는 16세기 중엽 이래 논산시 노성면 이산(尼山)에서 세거하였다. 선대가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노종파(魯宗派)의 파시조이고 4대조인 윤돈(尹墩: 1519~1577)으로부터 비롯되었다.²⁾ 윤돈은尹先智(1501~1568)와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에서 3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가 문화 柳淵의 차녀와 결혼하고 처향인 이산현 득윤면 당후촌(지금의 광석면 득윤리)로 이주하면서 노성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가로부터 많은 재산을 분배받은 윤돈은 이후 처가가 절손되자 처가 재산을 모두 맡게 됨으로써 봉사조까지 이양받았다. 윤돈이 50세를 일기로 돌아가자, 아들 윤창세(1543~1593)는 청주 경씨와 혼인 후 광석면 득윤리에서 현재의 노성면 병사리 비봉산 자락으로 터전을 옮겼다.

윤돈에서 윤창세로 가계가 이어지면서 노종 5방파가 파생되었는데, 윤창세의 아들인 설봉공(燧), 문정공(煌), 충헌공(焯), 서윤공(燾), 전부공(燿)의 5파가 그것이다. 5방파의 형성기는 병자호란 무렵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혼란기였다. 노종5방파 인물들은 척화운동을 주도한 척화가문으로 명성을 날렸다. 윤황은 척화상소로 유배생활을 했고, 윤전은 강화도에서 청나라와 대치 중 순절했으며, 윤선거의 처 공주 이씨는 강화도에서 순절하는 등 절의와 명분을 지킨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들은 대체로 노성을 근거로 하여 서울, 연산, 석성, 금산 등에 세거의 터전을 마련하여 성장하였다.³⁾

이후 노윤은 노성의 대족으로 성장하여 노성 윤씨(魯城 尹氏: 노성의 파평 윤씨)로 칭해졌으며, 우암 송시열이 『회덕향안』 서문(1672년)에서 광산 김씨, 은진 송씨와 더불어 호서의 3대족 중 하나로 칭해졌던 것처럼 재지사족의 기반을 확고하게 갖추었다. 즉 노성의 파평 윤씨는 조선 중기 노성에 입향하여 호서 명족으로 성장한 가문이었다.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9세 때 후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강도사에 앞서 어머니가 순절하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친히 어머니의 시신을 수렴하였다. 그런 뒤 거처하던 마루 밑에 묻고 사방에 여덟 개의 돌과 숯을 가득 채워 후일의 표시로 삼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임하여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식과 형식에 맞게 처리하는 등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가학으로 학문의 기초를 닦던 윤증은 14세 때 아버지를 따라 노성에서 금산으로 이거하면서, 아버지와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나누던 시남 유계에게 수학하였다. 19세 때는 공주 유성의 탄방(炭坊: 대전 서구 탄방동)에 살고 있던 탄옹 권시의 딸과 혼인한 뒤, 장인을 스승의 예로 모시면서 수학하였다.⁴⁾

2) 이곳은 윤돈의 妻鄉이었다.

3) 논산시지편찬위원회, 『논산시지』, 2005.

4) 권시는 이조 좌랑을 역임한 만회 권득기의 아들이며, 학문 연원은 가학으로 볼 때 우계 성혼으로 소급된다. 사후에 당색이 남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과는 사돈 간이었던 만큼 생존 당시에는 서인계와도 밀접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23세 때 율곡 이이의 학통을 적전으로 계승한 사계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수학하였다. 아버지 윤선거 역시 김집의 제자였다. 이후 그는 회덕의 송준길, 구포의 조익에게도 수학하였다.⁵⁾

30세 때부터 『가례원류』의 교정 작업에 참여해서 베껴 쓰는 일을 도운 적이 있고, 이후로도 그 자신이 직접 『가례원류』에 대한 본격적인 수정 작업과 교정 작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⁶⁾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 윤선거의 문하에서 가학을 통해 익힌 바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14세 이전의 학문 형성은 가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보」에 아버지를 도와 『가례원류』를 교정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의례문답』의 예문답 중에서도 아버지 윤선거의 예설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특히 예문답에서 자신의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자가례(自家禮)’로써 답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가학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 아버지의 학문과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존신하는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가학을 통해 학문과 사상의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3세가 되던 1661년(현종2), 석담서원에 외증조 성혼을 배향하는 의식을 직접 집전하였다. 45세 때 「우계서숙 중수기」를 찬술하고, 55세 때 「우계선생 연보보유」를 편찬한 사실 등을 볼 때, 성혼에 대한 존모의 정이 상당히 깊었음을 알 수 있다. 53세 이후 무실(務實)과 실심(實心)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서 그의 실학적 학풍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어 주목된다.

명재의 학문 연원은 기호학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해 본다면, 이를 비조로 하여 김장생 - 김집 - 송시열·송준길·유계·윤선거로 이어지는 율곡학파의 학연적 배경과 성혼 - 윤희 - 윤선거로 이어지는 우계학파의 가계적 배경, 그리고 혼인을 통한 권시의 혼맥적 배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즉 그의 학문 연원은 단선적이지 않고, 복선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윤증의 생애에서 학문적 동지로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박세채(1631~1695)이다. 박세채는 윤증과 나이도 비슷하지만, 가계가 모두 기호학맥이고, 김집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후일 둘은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입장을 같이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명재는 평생 학문에만 전념하여 전집 50권 26책에 달하는 『명재유고』와 8권의 『예서』 및 5권 1책의 『명재선생언행록』 등을 남겼다. 후생 교육에도 정열을 쏟아 금산의

5) 송준길은 김장생과 김집의 제자로서 송시열과 함께 기호유학의 적통을 계승하였고, 조익은 퇴계 이황의 문인인 장현광의 문인으로서 성리학과 예학에 밝은 학자였다. 모두 명재의 학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었다.

6) 신독재 김집의 문인 유계는 예학에 밝은 관인 학자였다. 그는 일찍이 『가례원류』를 저술하여 윤선거와 함께 교정·보완 작업을 하였으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후일 손자인 유상기가 이 예서를 유계의 이름으로 발간하려고 하자, 윤선거의 역할을 주장하는 윤증과 대립되어 노·소론 분파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쉽게 논란될 문제는 아니지만, 『가례원류』 자체는 분명히 윤증의 학문 연원과 예학 배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산천재서원을 비롯하여, 노성의 노강서원, 홍주의 용계서원에서 강학에 열중하였다. 『성학십도』와 율곡이 열었던 석담재 재규를 걸어 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하에서는 총렬신으로 칭송되는 박태보를 비롯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의변무소’를 올린 임상덕과 이세덕, 양명학을 정립한 정제두⁷⁾와 같은 명유가 그의 학통을 계승·발전시켰다. 그의 제자들 중 이름을 떨친 학자는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파평 윤형선에 의하면 82명의 문하생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명재의 학통은 화려하고 학문은 뛰어나 주자학을 기본으로 하는 의리지학을 체득한 것이었지만, 노소당쟁에 휩싸여 송시열과 유계 두 스승을 배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스승을 배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후에는 삭탈관직 당하는 등 노·소론 시비의 쟁점이 되었다.

학문 증진과 후학 양성에 열중하던 명재는 86세를 일기로 유봉정사(酉峯精舍)에서 돌아갔다. 이때 왕이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어 조문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 그해 3월 공주 향지산 백운동에 장사지냈다.

3. 명재의 실학사상

인간이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한 개인이 당면한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대정신과 그 개인의 현실인식을 살피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작업의 하나이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와 시대의 실체를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역사적 기능과 각 시대 내에서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 인물이 격동과 변혁의 현실에 대응했던 각양각색의 방식과 경험을 통해 특정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추체험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실상의 이해를 통하여 당면한 문제의 해결 대안의 강구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던 시기(혹은 시대)가 가장 격렬하고 역동적인 때였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그 시기가 누구나 동의할 정도의 격동의 시기였고, 본인이 정국 변화의 현장에 있었다면 확신의 정도가 더욱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재 윤증이 살았던 시기 역시, 역사상 격동과 변혁의 시대였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명재가 대응해 나간 현실인식 및 자세, 구체적인 행위의 모형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대가 그로 하여금 어떤 대응방식과 자세를 택하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동료집단의 의지가 그 시대의 모습과 성격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놓은 측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명재가 살았던 인조부터 경종조는 조선후기 당쟁이 가장 격정적으로 전개되었던 시

7) 『명재유고』와 『하곡집』에 전하는 양인 간의 왕복 서한을 분석해볼 때, 정제두의 정치사상이 명재에 기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은순, 「명재 윤증의 생애와 사상적 연원」, 『유학연구』5, 1997.

기였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과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과 병신처분, 신임사화 등 환국의 발생과 전개,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당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44년 만에 발생한 병자호란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는 물론, 사상과 이념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의리와 명분, 도덕과 윤리라는 주자학의 근본 질서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증유의 외침과 통치이데올로기의 붕괴라는 혼돈의 상황에서, 지식인의 고뇌가 깊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대안의 강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걱정외의 정치 변화와 사상적·이념적 변화가 전개되던 시기에 명재는 현실 정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의 언행은 현실 정치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존재성만으로 조선 후기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정국을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이자, 핵심 사상가요 성리학자였던 명재의 정국운영 자세 및 현실인식 등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조선 후기 정치 이념과 사상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명재의 정치관은 스승 송시열과 달랐고, 그 바탕은 16세기 이래 변화해 온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밖으로는 병자호란 이후 야기된 국제 관계의 변화, 특히 승명의리와 대청 실리외교 문제가 정치 사상면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다. 안으로는 양란 이후의 사회 변동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관념화된 주자학적 의리론과 명분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역사적 시련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명재는 급변하는 조선 사회에 부응하는 학문과 사상 체계를 세우려 외주내왕적 실학을 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치적 경륜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생을 두고 송시열의 명분론과 복별론을 극복하기 위한 실리론적 실학과 현실적인 정론을 주장하게 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실학사상의 일단을 살펴보자.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사상계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주자학 경도현상과 함께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적 흐름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학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을 포함한 근기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호서지역에서는 윤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의 학풍을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실학을 새롭게 주장하였던 것이다.⁹⁾

윤증은 자신의 문집에서 실학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 실학파의 대

9) 윤증의 실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학보가 간행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충남대 유학연구소 편, 『무실과 실심의 유학자 명재 윤증』, 2001).

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유형원의 저술에서 실학이라는 말의 용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나, 성호 이익도 한 번 정도 사용하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¹⁰⁾ 먼저 실학에 대한 그의 언급을 찾아보자.

- 세상에 도가 떨어진 이래 선비에게는 **실학**이 드물고, 사람에게에는 **실재**가 드무나……
- 다만 큰 가옥만이 있고 **실학**이 없는 것은 고래의 큰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 존양과 성찰에 정성을 다해 원대한 **실학**에 조금씩 나아감으로써 위안을 삼는 것이 우리의 도가 바라는 일이다.
- 만일 **실학**을 먼저 행한 뒤에 과예를 한다면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힘써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소씨 문장을 또 읽어 무엇을 방해하는가? 다만 **실학**에 힘쓸 일이지 왜 그렇게 넓혀서 넘치려고 하는가.

윤증은 지금 선비들에게 실학이 드물거나, 없다고 하면서, 큰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도가 지향할 방향은 실학이고, 학자들은 모름지기 실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생각건대 입지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고 **무실**이 아니면 끝마칠 수 없다.
- 우리가 다 같이 힘쓰는 것은 오직 우리 **실학**에 나아가 깊이 연구하고 힘써 행하여 한 줄기 라도 전하고 붙들어 그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따름이다.

무실이 아니면 끝마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실이 학문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이때 무실이란 실을 힘써 행한다는 의미이며, 바로 실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세상의 학자들은 참으로 **실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 실심이 서지 못하면 **실공**에 나아가지 못한다.
- 오직 마땅히 **실심**으로써 **실공**을 이루어서 성현의 가르침에 저버리지 않기를 구한다.
- 무릇 **실심**이 있는 뒤에 **실공**이 있고, **실공**이 있는 뒤에 **실덕**이 있으며, **실덕**이 있는 뒤에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가는 곳마다 **실**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 **실심**이 있으면 곧 저절로 **실공**이 있게 되니, 그것은 또한 공부를 그치지 않고 하는데 있다.

10) 한우근의 글(『명재 윤증의 실학관- 실학의 개념 재론-』, 『동국사학』 6, 1960)과 충남대 유학연구소의 글(『무실과 실학의 유학자 명재 윤증』, 2001) 참조.

실심이 있으면, 실공이 있고, 실공이 있는 다음에 실덕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실심이 실덕의 근본 바탕이라는 것이다.

하늘에는 실리가 있고, 사람에게에는 실심이 있으며,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 실심이라는 것이다. 실심이 없다면 천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학이 없는 것은 바로 실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심은 무엇보다도 성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증의 실학에서 실심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증의 실학은 실심, 실학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실’이란 ‘인의예지’의 사덕을 몸에 지닌다는 의미의 실이었던 것이다.

윤증의 실학은 무엇보다도 수기와 철학 탐구를 지극히 중시하던 전통적인 성리학이라고 보기도 한다.¹¹⁾ 누구보다도 실천을 강조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보자.

- 학문은 **앎**과 **행동**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소학』 가운데도 앎과 행동이 있고, 『대학』 가운데도 앎과 행동이 있다. 다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 강관의 말을 가만히 듣건대, 사서오경 이하 성학집요에 이르기까지 성현의 책을 두루 진강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자만 이미 진강한 책을 다시 자세히 익히는데 힘쓰신다면 그것을 계승하여 넓은 곳에 반드시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주자가 상주하여 논한 독서의 방법은 실로 절실하고 지극하니, 오로지 몸소 경을 열람하고, 먼 곳에서 구하지 않고 보통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참된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술에 힘쓰지 않고, 그것보다 오히려 그 실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였다. 그가 실천을 얼마만큼 강조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선비뿐 아니라 군주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실학을 수기의 단계에만 머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또 허명으로 **실용**에 응하는 일은 더욱 피하기로 결심하여 한 번도 사은하지 않았습니다.
- 선인의 학문은 내이고, **실**이며, 우옹의 학문은 외고, 명이다
- **실사**에 힘쓰지 않고, 오직 문장 갖추기만을 일삼는 것은 큰 병폐라고 한다. 사장만을 익히고 있을 뿐인데, 사장을 숭상하지 않으면 곧 **실학**을 하는 선비가 빛을 보게

11) 고영진, 「명제 사상의 형성과정과 한국 사상사적 위치」, 『무실과 실심의 유학자 명제 윤증』, 2001.

될 것이다.

윤증은 실이 허명이 아니라, 실용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실사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증이 말하는 실학이란, 실용을 강조한 것으로 단순히 윤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천의 단계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실은 현실을 직시하여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현실 자체를 주자학의 교시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 타개책 역시 주자의 경험에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믿는 송시열의 논리와 대립하였던 것이다. 즉 명재의 실학은 주자학적 실학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보자.

- **실지** 공부에 힘쓰지 않으면서 밖으로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 잡서를 두루 보아 학문이 여기저기 분산되면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실학**에 힘을 쏟아 부어야 비로소 밖으로 내달리는 폐단을 면할 수 있다. …… 문자 외에 서로 서로 몸과 마음으로 **실학**을 같고 닦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실지공부(實地工夫), 즉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실질적인 공부의 범위는 아마도 실용적인 학문으로 생각된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이후 조선후기의 탈주자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학문 내용과 관련시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경세치용과 관련된 학문을 주장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명재의 학문은 송시열의 전례주의적 명분론으로 관념화된 성리학 일변도의 학문에 대항하여 왕학적 학문 경향을 띤 외주내왕의 학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실용주의적 실학과 독창적 과학성, 그리고 반 권위적인 사유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흥하려는 학문적 특징을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노소당쟁이 일어나던 17세기 이후에 노정된 정치와 사회, 경제 질서의 파탄과 체제 이완의 역작용으로 주자학과 그 이념으로 경색되었던 집권자들은 주자학적 권위와 명분을 더욱 내세웠다. 형이상학적 이기론과 전례화된 예론, 군자소인의 명분론을 강조하였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 개혁론을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송시열의 주자학 종분주의와 이에 근거한 존화대의 및 승명별칭의 복별론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과 현실 속에서 파생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았다.

우선 외교적으로는 대청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불거졌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후 노정된 재정 파탄과 민생 안정의 문제, 정치적으로는 소용돌이치는 당쟁 등 복잡한 현안이 불거졌다. 현실적인 당면과제에 대한 각 정파 간 인식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과 대안 역시 달랐으며, 정견 역시 조제보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명재의 실학적 견해와 실리론적 정론, 현실정국을 보는 시국관은 대단히 예리하였다. 안으로는 16세기 이래 크게 변화하는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밖으로는 양란 이후 야기된 국제질서의 변화, 특히 송명외리와 대청 외교를 실리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명재의 학문과 사상은 이완되어 가는 조선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민생 회복의 실리론적 실학을 근거로 명분론과 복벌론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자세를 근거로 볼 때, 그를 실학의 태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산에서 34년을 거주한 명재는 17세기 이후 안으로는 경제적, 신분적 와해 현상이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정치적 명제를 인식한 지식인이었다. 밖으로는 송명복벌의 이론으로 경직되었던 상황에서 실리론만이 현책(賢策)임을 주장한 실학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회니시비의 주인공이 되어 집권 노론의 혹평을 받았고, 윤리적으로는 두 명의 스승을 배반했다는 폐륜으로 지목되었다. 그렇지만 학문과 사상은 종유하던 많은 소론 진보 세력들에 의해 꾸준히 전승 발전되어 노론 일당전제 하에서 비판 세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당쟁사에서 명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과 사회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명재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조선후기 사상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실학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다양하게 모색하고 추구하였던 실학적인 학문 자세와 행동거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기보다,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명재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추구하였던 실학이 또 다른 실학자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및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상과 학문, 현실인식태도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한말 금산지역의 근대교육운동

성 주 현/경기대

1. 머리말
2.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
3. 설립 주체와 주요 인물
4.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문화에 접하게 된 조선 정부는 구래의 전통적 유교교육을 청산하고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기 위한 신식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민간 유지들에 의해서도 일종의 민중교육 운동이 추진되었고 조선에 진출한 기독교계 선교단체들에 의해 선교 계통의 학교도 세워졌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한 이 시기 교육운동가들의 구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기의 교육운동은 국권의 수호를 위한 결의였으며, 생존을 위한 실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민중교육 운동은 보통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내지 전문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으며, 여성교육과 기술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문호 개방 직후부터 일부 선각자 적인 지식인들은 근대교육의 실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영효, 김옥균과 같은 개화사상가들은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개혁을 강력히 기도했고, 이후 유길준, 윤치호 등과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교육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개화사상가들의 주장과 노력에 의해,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도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은 1883년 덕원부사 정현석과 유지들이 설립한 원산학사이다.¹²⁾ 이후 각지에는 근대교육기관 즉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금산지역¹³⁾의 근대교육운동은 대체로 1904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경에 설립된 금신학교는 금산지역의 최초의 신식 학교였으며, 이후 심광학교, 명성학교, 제남학교, 취영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교설립을 통한 교육운동은 일제강점 이후에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한말 금산지역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 신용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0, 한국사연구회, 1970.

13) 여기서 금산지역은 현재의 금산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산정하였다.

2.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형성, 전국적인 농민반란, 서학의 전래로 성리학적 기강이 현저하게 해이해졌으며, 서세동점의 시기 구미 자본주의 열강은 상품시장과 원료 조달지를 아시아로 확대해 나갔다. 이와 같은 안파의 정세는 조선의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던 도중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은 더 이상 조선을 전근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했으며, 1894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정부는 근대화를 지향하기 위한 대수술인 갑오개혁이 단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은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이로 볼 때 우리의 근대 교육은 국가 근대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형성되었다. 특히 국가의 부강은 교육의 혁신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근대식 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대학교 설립은 곧 새로운 역사에 직면하여 대처해나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학교는 기독교와 천주교 전파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상당수 세워졌다. 이처럼 구한말의 근대학교 설립은 정부·민간인·선교사의 세 집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던 것이다.

근대학교를 위한 국가의 최초의 노력은 1886년의 동문학교(同文學校)와 육영공원(育英公院) 등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의 개혁정부는 교육개혁의 임무를 띠고, 1895년 1월 7일 아문(衙門)은 고시를 통하여 국정쇄신을 위한 영재교육(英才教育)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인재를 양성할 뜻을 밝히고, 내정개혁방안강목(內政改革方案綱目) 중 제5조에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였다. 계속해서 근대사상의 수용을 위한 해외유학생의 파견이 홍범(洪範) 14조의 1항에 나타나 있으며, 1895년 2월에는 근대교육에 대한 고종의 교육조서가 발표되었다. 당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각급 학교의 공통된 특징은, ①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대학으로 연결되는 교육체제의 확립, ② 근대 선진국가의 교육과정 수용, ③ 국민교육으로서 초등교육 의무화의 기초확립, ④ 기회균등의 원칙 설정으로 인한 민주화예의 공헌, ⑤ 교과목에서 외국어의 장려 등을 엿볼 수 있다.

일부 선각자들은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정부에 학교설립을 건의하는 한편, 신교육을 외면하는 당시 민중을 계몽하여 교육입국(教育立國)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1905년을 전후하여 민족의 각성이 교육구국(教育救國)의 일념으로 승화되어, 민족교육의 생성과 전개가 국민운동의 염원으로 전개되었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근대사학기관은 5,000여 교에 달하였으나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 많은 사학이 폐쇄되었다. 근대 사립학교의 공통된 특징은 ① 국민회복을 위한 민족운동가의 양성, ② 배일교과(排日敎科)에 의한 민족의식의 고8양(高揚), ③ 과외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 ④ 교육

실천을 통한 항일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근대교육의 이념에 따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이 유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883년 원산학사가 설립된 이후 서울에서는 광혜원을 비롯하여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이 설립되었고, 이어 평양에서도 광성성학교와 승덕학교가 개교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금산지역에서도 근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었다. 그렇지만 여전이 일부에서는 전통의 서당이 유지되었는데, 부리면 평촌리 구암사숙, 제원면의 금곡서당, 그리고 김제룡이 설립하였다는 금성사숙이 있었다.¹⁴⁾

그렇다면 금산지역에 첫 근대학교는 언제 설립되었을까? 최근에 간행된 『금산군지』에 의하면 “1907년 3월에 설립한 사립 금신학교”라고 밝히고 있다.¹⁵⁾ 이는 1908년 4월 23일자 『황성신문』의 「錦倅熱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8일자 「금교흥왕」에 의하면 “금산군 금신학교는 설립한 지 사오년에”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금신학교의 이보다 3,4년 앞선 1904년경으로 추정된다.¹⁶⁾ 금신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수신·국어·한문·일본어·산수 등이었다. 재학생들의 연령은 2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¹⁷⁾

금신학교의 설립에 관한 기사는 『황성신문』 1908년 4월 23일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嗟夫라. 本學校之設立이 在於上年 丁未春인바 有志紳士之奮勵와 可教子弟之趣向이 蔚然有進進之望호니 遠近聞者孰不欽贊이리오 余今莅茲호야 先問校之興替則郡人曰 經地方擾攘호고 且因財政窘乏호야 竟至廢置에 仍不修舉라호니 慨歎之極에 寧欲無言 이라 當此時代호야 日急一日者即開明維新이더 苟非教育이면 曷以爲哉아 顧此錦郡이 雖處在峽中이나 山川이 明媚호고 人物이 耒秀호야 紳士愛國之誠를 可以激發이오 聰俊需之世材를 可以培養이어늘 一任其長夢於黑洞洞中이 已極可惜이온 何況既設之校를 不踰年而旋廢者乎아 此不得不復設乃已故로 乃與有志諸彦으로 僉謀允愜호야 改聘教師호고 還集學徒호니 絃誦之聲이 宛復如前이라 此校之名稱錦新이 意豈徒然哉아 錦上에 添花호니 最喜溫古而知新이오 錦郡이 有色 호니 可期日新又日新이라 嗟嗟靑年이여 顧名思義에 可不勉旃가 第念校務維持之方이 不可無備者財政也라 不佞이 適守茲土호야 熱心振興을 宜不後人이나 以此月銀으로 無以措手故로 搜得家貲에 先捐五十圓호야 以助萬一之資호니 是豈有私於我也리오 惟願憂世好學之僉君子는 同聲相應호고 仗義優施호야 俾存贊成之效호고 共躋文明之域이 幸甚幸甚.¹⁸⁾

14) 『금산군지』 1권, 639쪽.

15) 『금산군지』 1권, 금산군지편찬위원회, 2011, 639쪽.

16)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능하면 당시의 언론을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황성신문』 1907년 3월의 기사에는 금신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이 없다.

17) 『금산군지』 1권, 639쪽.

이 취지서에 의하면 금신학교는 1907년 봄이었으나 의병 투쟁과 재정의 궁핍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로 부임한 김우식은 ‘개명 유신’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폐교 위기의 금신학교를 부활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김우식은 자신의 월급과 가재를 기부하는 한편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금신학교를 유지하였다. 금신학교의 부활에는 군수 김우식 외에도 김진현, 김제룡, 김재훈, 유지혁 등이 자금을 출연하였고, 이들은 부교장, 감독, 사무장, 고문 등으로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였다.¹⁹⁾ 그렇다고 학교 운영 자금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비록 부활은 하였지만 재정 압박은 여전하였다. 이해 11월경 군수 김우식, 군 주사 김재훈, 전 주사 임원희 등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통해 적립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신학교는 학생이 1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1개 반을 증설하여 갑반, 을반, 병반으로 확장하였다.²⁰⁾

금신학교를 부활시킨 김우식은 용담군 일서면 주자천에 거주하였는데,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1904년 7월 목민학교를 설립하여 미래의 목민관을 교육한 바 있으며,²¹⁾ 1906년에는 김태현, 양봉래, 김영철 등과 함께 향약전도를 학교에 기부할 정도로 교육운동에 적극적이었다.²²⁾ 뿐만 아니라 『황성신문』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1백 냥을 기부하기도 하였다.²³⁾ 금신학교가 설립될 시기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서를 발표하였다.²⁴⁾ 이외에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애국상채연맹회’를 조직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신화 2원을 기부하였다.²⁵⁾

군수 김우식의 노력으로 부활된 금신학교는 갑반과 을반 두 개 반을 운영하면서 매일 시험을 보면서 학생을 평가하였다. 1908년 4월 평가시험에는 갑반에서는 김갑삼·임택준·

18) 오호라. 본 학교 설립이 작년 봄인 바, 유지 신사의 격려와 자제들의 취향이 합쳐 진취적 희망이 있었으니, 원근의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내가 군수로 부임하여 먼저 학교의 진흥 여부를 물으니, 군민들이 말하길 지방의 의병투쟁과 재정궁핍으로 인하여 거의 학교를 폐할 지경에 학업을 닦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매우 개탄스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오늘날 개명 유신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거늘 교육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금산군이 비록 산중에 처해 있으나 산천이 아름답고 인물이 빼어나 신사들이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고 총명하고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배양할 수 있다. 갇힌 동굴 속에서 긴 꿈만 꾸고 있는 것도 극히 애석한 데, 하물며 이미 설립한 학교를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폐함이 더욱 놀랍도다. 이에 부득히 학교를 다시 설립하고자 유지와 선비들과 더불어 논의하여 교사를 다시 초빙하고 학도를 불러오니, 악기 소리와 암송하는 소리가 전과 똑같도다. 이 학교 명칭 금신이 어찌 헛되겠는가? 금상첨화 하니 온고지신을 가장 즐길 것이요, 금산군에 좋은 색에 어렸으니 일신우일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 청년들이여. 면분과 의리를 돌아보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무를 유지할 방안을 생각하건데 재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지라. 본인이 이곳에 부임하여 열심히 진흥하는 것을 뒷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되니 내 월급으로는 어쩔 수 없어 가재를 다 털어 먼저 50환을 의연하여 만분의 일을 돕고자 한다. 이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는가? 원컨대 세상을 근심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모든 군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응하고 의리에 맞게 최대한 베풀어 학교 돕는 효과를 보이고 다 함께 문명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면 매우 다행이로다. (『금산군지』 1권, 639-640쪽)

19) 『황성신문』 1908년 5월 19일자.

20)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8일자 및 12월 25일자.

21) 『황성신문』 1904년 7월 15일자.

22) 『황성신문』 1906년 11월 16일자.

23) 『황성신문』 1904년 3월 22일자.

24) 『황성신문』 1907년 7월 5일자.

25) 『황성신문』 1907년 5월 30일자.

임상희·김병택·김태구·김천식 등 13명, 을반에서는 문진석·김대식·박찬명·김용문·김현준 등 6명이 각각 우등생에 선발되었다.²⁶⁾ 이해 6월 월종 시험에는 갑반에서는 우등생 김태구·김태연 등 10명, 급제생은 고도화·정화종 등 12명, 을반에서는 우등생 문진철·박찬문 등 12명, 급제생은 유세춘·김갑종 등 7명이었다.²⁷⁾ 또한 이해 12월 월종 시험에서는 갑반에는 김태연·임면준 등, 을반에는 김갑종 등, 병반에는 고창근·김보길 등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외에도 급제생으로 박상은·고도엽, 김창렬·김응석, 정필종·박찬명 등이 각반에서 선정되었다.²⁸⁾

금신학교는 1909년 들어 군수 김우식과 주사 김재훈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학생은 60여 명에 이르렀으며 갑을병 각반에서 김태연, 김창렬, 박찬명 등 우등생 11명을 뽑았다. 그리고 이해 7월부터는 학부에서 매월 15환씩 보조를 받았다.²⁹⁾ 1910년에는 1학년에 42명, 2학년에 17명, 3학년에 8명이 재학 중이었으며, 이해 제1회 졸업식에는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³⁰⁾

금신학교 외에도 금산지역에는 적지 않은 근대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그 연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산군지』에 의하면 1908년 2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심광학교를 설립하였다. 초대교장은 선교사 캐처(Catcher)였으며 재학생은 25명, 예산은 304환이었다.³¹⁾ 심광학교는 1910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우등생은 송해규와 이기순이었다.³²⁾

또한 1908년에 제남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08년 10월 25일에 발행된 『호남학보』에 의하면 “錦山郡 濟南學校事로 下去하얏던 摠代의 報告와 錦山郡守 金宇植氏 函復을 朗讀하다”³³⁾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제남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남학교와 관련된 기록은 『대한매일신보』에 소개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금산군 제원 제남학교장 박항래 씨가 청년 자제를 대하여 극력 권면하고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하여 진보케 하고 측량원을 고빙하여 공유한 산림을 측량하고 또 고승광 씨로 협력하여 제남학교를 창설하고 80여 명 생도를 열심히 교수하더라.³⁴⁾

이 기사에 의하면, 제남학교는 박항래와 고승광이 설립하였으며, 재학생이 80여 명이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남학교는 설립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향

26) 『황성신문』 1908년 5월 19일자.

27)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14일자.

28)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5일자.

29) 『황성신문』 1909년 10월 10일자.

30) 『금산군지』 1권, 640쪽. 금신학교는 일제강점 이후 1911년 4월 19일부로 4년제로 수업년한이 연장되면서 공립 금산보통학교로 전환되었다.

31) 『금산군지』 1권, 640쪽.

32)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17일자.

33) 『호남학보』 5호, 1908년 10월 25일, 53쪽.

34)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30일자.

교에 부속된 사마재의 토지 때문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남학교가 설립될 당시 향교와 주민들 간에 토지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산군에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마답 몇 섬지기가 있더니 갑오년에 과거가 폐지된 후로 그 논을 그 고을 향교에 부쳤더니 근일에 그 고을에 사는 신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 논을 학교에 부치려고 함에 향교에서 반대한다더라.³⁵⁾

금산군 백성들이 그 고을에 있는 사마답을 학교에 부속하는 사에 대하여 서로 다투었다는 말은 전보에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그 고을 백성들이 학부에 청원할 차로 많이 상경하였더라.³⁶⁾

이 두 기사에 의하면 사마답은 1894년 과거제가 폐지된 이후 향교에서 관할하였는데, 제남학교를 설립한 유지들은 이 사마답을 제남학교에서 관할하여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향교와 주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금성면 장목동에 경양사숙이 설립되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오래유지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진산지역에서도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1907년 12월 명덕계가 조직되었는데, ‘흥학’에 열심이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北 珍山郡 北面 水心臺居 兪哲濬 趙炳薰 鄭容冕 李秉吉 申正仁 尹享燮 諸氏가 數年前에 與鄉黨 有志紳士로 協議聚財호야 一契을 樹立호고 明德契라 稱호얏는대 資金이 一千餘 兩에 至호지라 該契員 趙英壽 氏가 日本國에 數年 遊學호고 今秋에 歸鄉호야 時務에 熱心從事호야 契長 宋설老 與該契員 諸씨로 一同詢議호야 以其資金으로 新書籍을 廣買호야 興學에 熱心호미 諸氏의 革舊就新호는 勇意을 莫不稱頌이라더라.³⁷⁾

명덕계는 진산군 북면에 거주하는 유철준, 조병훈, 정용면, 이병길, 신정인, 윤형섭 등이 오래 전에 조직하였으며, 계원 조영수가 일본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 신학문 책을 사서 학교에 제공하는 등 흥학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산지역에도 근대적 학교가 이미 설립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진산지역의 학생들이 동참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35)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9일자.

36)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0일자.

3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자.

全北 珍山郡 主事 柳錫羲氏가 國債報償金 十圓을 先爲捐出하고 諸人의게 對하여 國民義務로 一場勉勵한 즉 氏의 私塾 內 學童과 傍聽諸氏가 多小出義하여 新貨 合 十四圓 八十五錢을 收送하였더라.³⁸⁾

즉 진산지역의 사숙의 학생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1900년대 중반에 근대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08년 진산면 교촌리에 진산향교에 취영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9년 2월에는 진산면 지방리에 육영학교가 설립되어 근대교육을 이끌어 갔다.³⁹⁾

이상으로 한말 금산지역에서의 근대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산지역 근대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금신학교였다. 금신학교는 1907년 3월에 설립되었지만 일부 기록에는 이보다 앞선 1904년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1908년 제남학교를 비롯하여 심광학교, 명성학교, 취영학교, 육영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3. 설립 주체와 주요 인물

앞서 살펴본 금산지역에는 금신학교를 비롯하여 제남학교, 심광학교 등 다양한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를 설립한 주체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금신학교는 설립할 초기 당시의 주체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폐교 위기에서 1908년 김우식을 비롯하여 김제룡, 김재훈, 유지혁 등이 부활시켰다. 1908년 금신학교 부활을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우선 김우식은 금신학교 부활 당시는 금산군수였지만, 그 이전에는 용담군수와 태인군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10년에는 고창군수로 활동하였다. 김우식은 1843년 6월 4일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海豊, 예부상서 해풍부원군 김종선의 23세손으로 한학을 수학하였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양정의숙 설립원, 화동학교 교장 외에도 적십자사 정사원, 호남철도주식회사 사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⁴⁰⁾ 또한 자신을 『황성신문』 애독을 권유하는 한편 황성신문사에 보조금을 기부할 때 ‘鰕生’이라고 하여 ‘이름 없는 유생’임을 밝히기도 하였다.⁴¹⁾

김우식은 평소에도 신학문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1904년 용담군에 목민학교를 설립한 바 있으며, 1906년에는 국민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법을 정리한 『國民須知』

38)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18일자.

39) 『금산군지』 1권, 640~642쪽.

40) 『조선신사대동보』(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1) 『황성신문』 1904년 3월 22일자.

외에도 『헌정취지』, 『훈몽요결』 등을 간행하여 전국 향교에 배포하기도 하였다.⁴²⁾ 1907년 11월 18일에는 청년회관 신축 상량일에서 애국심 함양에 대한 강연을 할 정도로 애국계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⁴³⁾

1910년에는 태인군수로 재임 중에 있으면서 용담군 사립 화동학교 찬성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찬성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운영자금을 의연하는 한편 각종 학용품과 졸업식 등 행사에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⁴⁴⁾ 이외에도 김우식은 대한자강회와 호남학회 등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자강회에는 대한자강회월보 간행 보조금으로 10환을 기부한 바 있으며,⁴⁵⁾ 호남학회에서는 1908년 10월 제남학교사건을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22년에는 용담청년회가 설립될 때는 2백 원의 거액을 기부하기도 하였다.⁴⁶⁾

김제룡은 侍讀으로 금산향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김재훈은 금산군 주사였다. 김재훈은 주사로 있을 때 의병이 우편취급소와 세무서, 일본인 가옥을 습격하여 민심이 흉흉할 때 이를 원만히 수습하기도 하였다.⁴⁷⁾ 유지혁은 재무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금산학교 부활을 주도했던 주체들은 금산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금산향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생 출신이었다.

다음으로 제남학교를 설립한 박항래와 고승광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박항래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국채보상동맹회를 조직하고 취지서⁴⁸⁾를 발표한 바 있으

42)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26일자 및 1906년 11월 23일자 ; 『황성신문』 1906년 4월 25일자.

43) 『황성신문』 1907년 11월 19일자.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昨日 鍾路新建築 青年會館上樑日에 金宇植氏의 演說草가 如左하니

今此 二十世紀에 生存競爭 時代를 當야 優者 | 勝고 劣者 | 敗함은 即天然 公例여늘 哀息다. 우리 韓國上下는 長夜昏夢에 舊義慣을 未祛야 同胞을 相繼고 骨肉을 相殘야 專制 舊習惡染으로 不能一其心而團其體 故로 犧牲의 禍와 奴隸의 扼을 自招하야 今日 悲慘 情景이거의 難救 地境에 至하얏스니 戴天立地 韓國人種으로 엇지 掩面痛哭치 아니하리오. 是以로 有志하은 內國諸紳士가 韓國同胞의 慘禍를 救濟코져 하야 此會館을 建築하야 今日 吉辰에 上樑이 되오니 宇植의 木石頑情으로도 感念을 不勝하야 盛會에 來參하야 諸君子의 至誠惻怛을 讚賀하옵고 仰天同祝於 皇上帝야 우리 韓나라 四千餘載된 祖國魂을 風霜萎靡中에 滅亡키을 挽回야 沮息시기를 바라옵고. 또 繼祝하옵기는 韓國京鄕에 未開한 同胞가 一心悔悟야 聖經訓誨을 安宅經과 護身符로 알고 課日講習야 結合大團體하면 信誠攸暨에 皇天이 俯鑑하사 百邪가 歸正하고 家國이 并泰하옵기를 千萬祝手라 하얏더라.”

44) 『황성신문』 1910년 6월 14일자.

45) 『대한자강회월보』 3호, 1906년 9월 25일, 74쪽 및 『대한자강회월보』 4호, 1906년 10월 25일, 47쪽.

46) 『동아일보』 1922년 2월 5일자.

4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5일자

48) 국채보상동맹취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敬啓者今我國債報償에 闔境煽動而義捐同胞가 若恐或後則庶幾我大東進步之基礎也大抵有土地焉하며 有人民焉하니 若非土地면 人民이 其何以居之며 非人民이면 土地를 亦將焉用고 土地人民이 俱爲無用이면 貯金千萬을 將何處而用之오 若此巨款을 一年 二年에 至於十年 二十年而不爲清完則子母之額이 豈徒一千三百萬元哉아. 然則此非國家之大關이라. 乃箇箇人自身上之所當則豈不勉哉며 豈不懼哉아 至若斷烟同盟야 血誠愛國에 豈拘義捐之多少哉아. 惟我一郡僉員은 各面各洞에 家喻說戶야 以知不得不急先務之義의게 하며 扶國丹忱으로 盡其量力而細流成海와 壤土成泰之義로 以補一千三百萬分之一을 千萬幸甚幸甚應行節目如左

一 報償方針은 一般同胞義金을 募集하되 不拘多少함

一 此同盟無論大小民人男女老少하고 並人參함

一 義捐僉員에 氏名을 每月終에 新聞에 揚載함”

며,⁴⁹⁾ 여산군수로 있을 때는 송촌의숙을 설립하고 교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⁵⁰⁾ 또한 여산군 황산 사립 창흥학교에 보조금 30환을 기부하기도 하였다.⁵¹⁾ 뿐만 아니라 박항래는 호남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⁵²⁾ 1908년에는 공립 금산보통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⁵³⁾ 박항래는 여산군수로 재직 당시 선정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⁵⁴⁾ 그러나 1904년 동학교인들이 ‘흑의단발’하는 문명개화운동 당시에는 동학교인을 탄압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⁵⁾ 또한 여산군수 당시 집포관으로 의병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⁵⁶⁾ 그리고 고광승은 국채보상 기금으로 1원을 기부한 바 있다.⁵⁷⁾

한편 제남학교 설립에 사마답⁵⁸⁾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고제학은 유생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고제학은 박항래와 함께 국채보상일심동맹회를 조직하고 의연금을 모금하였다.⁵⁹⁾

이외에도 심광학교, 명성학교, 취영학교, 경양사숙, 육영학교 등이 있었지만 이들 학교를 설립한 주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당시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를 주도한 계층을 본다면 대체로 지역 유지였다.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던 학교들의 설립

49)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9일자.

50)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일자 및 『황성신문』 1906년 7월 23일자

51) 『황성신문』 1907년 6월 20일자.

52)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5일자.

5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31일자.

54) 『황성신문』 1904년 8월 13일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來人의 傳說를 聞은 則 礪山郡守朴恒來氏의 臨民治蹟이 循良規謨로 到處에 名譽가 素著호더니 今春赴任後에 廉明爲治호고 公直聽訟호며 士而勸學에 諭以忠孝호고 民而勸農에 勞而勤苦호며 且戡捕官을 兼任호야 所管列邑에 潛踪巡行호야 賊盜回調捉호야 巨魁난 砲刑호고 其次는 懲放도함인 該列邑等地에 賊警이 寢息호고 人民이 安堵호며 讞捕之際에 下隸之盤纏는 自官出給호야 雖盃酒孟飯이라도 民間의 貽弊가 無호다더라.”

55) 『황성신문』 1904년 10월 20일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全北戡捕官礪山郡守朴恒來氏報告를 據호 則陰九月初四日에 東匪幾千名이 自咸悅黃登里로 旋往恩津江鏡浦하야 各處潛伏之徒가 望風響應하야 一入其黨則先爲斷髮하야 絕其歸路故로 多有被削悔哭者나 然而新附者 日益雲集하니 燎原之回를 莫可止熄이옵기 郡守가 奉承訓飭하와 剿擊解散次로 率砲軍巡回等호고 發往恩津하야 巨魁三十名을 捕捉호고 餘黨은 各散逃走호 其東學名帖에 大書全北大接法主라호고 太極章에 書龍潭淵源劔岳布德이라호고 又書曰布德天下廣濟蒼生輔國安民之大道라호았더라.”

56) 『황성신문』 1904년 4월 13일자 및 1905년 4월 26일자.

57)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8일자.

58) 제남학교 설립 당시 사마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本郡守 金宇植氏는 熟於新式호와 名譽가 播於京鄉호와 公薦郡守之任으로 善爲交涉于各署호야 邑村이 無事호고 捐俸助校에 熱心勸勉호야 學校가 興旺호였스오며 所謂 士林 高濟學 朴勝淑은 常在鄉校호야 校中諸事를 恣意舞弄다가 今當明哲郡守에 不敢弄奸 故로 空自挾感하야 新聞上에 構誣揭載하니 萬萬痛惡이라 然而 白白無瑕則 不可嗷嗷多辨이나 今此高朴之行爲不正은 錦山一郡之所共知니 有誰信聽이리오 以隱結事로 受侮於財署라 호니 官隱結이 百餘結인디 今則 結稅가 係於財署호야 郡守는 相關이업기로 到任即時 陸總호였스니 何以大受侮며 以士人濫刑事로 見責於警署라 호니 高濟學이가 鄉校畚을 司馬齋私契畚이라 藉稱호고 私自放賣호야 稱托於濟南學校設立호다 호기로 時校任이 此畚은 鄉校畚이오 非司馬齋契畚이니 不可放賣라 호 今 濟學之子與姪이 成羣作黨호야 時校任을 無數亂打호야 校任이 呼訴於官庭則 郡守가 非木石이어든 知其事狀호고 誰無憤痛之心乎야 因校稟호야 痛治悖惡이어늘 何以見責於警署며 以邑橋新築費中 四十圓加排라 호니 修築後 零餘金이 四十圓이기로 與各署로 相議호야 落成宴費로 用之也라 何以見因於各署며 以郡北書員三分一條分食이라 호니 書員은 係於財署호야 郡守가 初不相關이오 以校壇任差出事는 依其鄉中薦望差出이오 郡守自意로 一不差出則 何以失望於士林이며 斷髮令示事는 觀察道訓令體本이오 一無加減則 何以歸怨於郡守며 以濟南學校沮害라 호니 鄉校畚을 司馬齋 私契畚이라 호야 藉托學校호고 私自放賣호기로 卞明鄉校畚이오 非學校沮害며 明倫堂上에서 反害宗教라 호니 革舊就新호야 共臻文明之域호자고 演說호였더니 噫彼頑固輩가 隨時變易과 因時制宜은 古聖之遺訓而 今時之急務어늘 渠自誤解宗教호고 反害宗教라 호니 誠甚慨嘆이며 諸般 改良이 初不協於民事라 호니 此乃上府訓飭이오 郡守自意로는 一不改良호였스며 不協於民事호 事가 毫無호며 宴會時 撓頭唱歌호야 全失威儀라 호니 乾元節에 率錦新學校生徒 六十餘名호고 躬唱愛國歌호야 勸勉學徒호였더니 鄉氓頑固輩가 初見호고 失其威儀라 호니 容或無愧이며 詞訟間 受賂不公이라 호니 氏之廉潔은 遠近이 咸知호니 確知受賂則 何不指名詳言乎야 噫彼狹雜輩가 以其私憾으로 汚人名譽호오니 內外僉君子는 切勿信聽호읍소서

錦山郡 鄉校 儒林 朴周陽 郡主事 金在蕪 直員 李德基 書記 韓澤文 義壇有司 金榮洙 鄭萬鍾 梁在成 各面面長 鄭道亨 權士元 金敬先 池永瑞 金局瑞 鄭汝玉 黃仁西 金允執 吉炳龍 等 卞誣 廣告”(『황성신문』 1909년 4월 15일자)

59) 『황성신문』 1907년 3월 18일자.

주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생 등을 포함한 지역 유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신학교, 제남학교를 설립하거나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한말 금산지역 근대 학교를 설립한 주요 인물의 활동

학교	이름	주요 경력 및 활동	비고
금신학교	김우진	용담군수, 태인군수, 금산군수, 고창군수, 목민학교 설립, 국채보상운동 참여, 대한자강회 및 호남학회 회원, 용담 화동학교 교장 및 찬성장	
	김제룡	금산향교 시독, 금성사숙 설립	유림
	김재훈	금산군 주사	
	유지혁	재무서장	
제남학교	박항래	금산군수, 여산군수, 송촌학교 설립 및 교장, 국채보상동맹회 조직, 호남학회 발기인, 공립 금산보통학교 교장, 동학교인 및 의병 탄압	
	고승광	국채보상운동 참여	유림
	고제학	국채보상일심동맹회 조직	유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말 금산지역에서 근대학교 설립을 주도한 주체들은 우선 군수였다. 김우진과 박항래는 금산군수로 재임하던 중 각각 금신학교와 제남학교를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우진은 금산 외에도 용담군에서, 박항래는 여산군에서 각각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김제룡, 고승광, 고제학 등 유림들이었다. 이들 유림은 금산 또는 진산 향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보다는 신문학을 보급하는 근대학교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금산지역 유림들은 위정척사 계열이라기보다는 개신유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김재훈, 유지혁처럼 지역 유지들이었다. 이들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금산지역 근대학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교육운동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학회 참여 등 다양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다만 박항래의 경우 동학교인의 근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교인의 활동,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투쟁을 탄압하였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한말 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금산지역에서의 근대교육운동은 1907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금신학교의 경우 일부 기록에서는 1904년경에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금신학교는 1907년, 제남학교를 비롯하여 여타의 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었다. 이로 볼 때 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은 19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군수를 비롯하여 유림 등 지역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산군수 김우식과 박항래는 군수로 재임하면서 학교 설립을 주도하거나 후원하였다.

셋째, 금산지역 근대교육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교육운동 외에 다양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우식, 박항래, 고승관 등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또한 호남학회 등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학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한말 근대교육운동은 금산지역 근대문명을 수용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제강점 이후 금산지역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청년운동 등을 주도하는 사회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금산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사 정리와 연구 쟁점

정 을 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금산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사 정리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사회로의 출발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점은 그동안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무수한 연구 성과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결국 기존의 동학‘난(亂)’이라는 인식을 농민혁명, 농민전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동학혁명관련 연구들은 ‘혁명’이라는 점이나 ‘전쟁’이라는 측면을 규명해야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나 전개과정, 농민군의 활동, 농민군지도자들의 활동, 동학과의 관계, 남북접 문제 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혁명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별 사례 연구들을 통해 지역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그려내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졌던 것이 동학혁명관련 연구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道)’라는 지역적 행정구역 단위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도’에서 더 나아가 ‘시, 군’ 단위의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금산과 진산의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연구는 1998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첫번째 연구가 양승률의「1894년 금산지역 의회군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논문이었다. 1998년 충남사학회에서 발간한『충남사학』10집에 수록된 논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양승률은 금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보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회군이 어떻게 조직되었고 활동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진산 부수암전투(浮水巖 戰鬪)에 대해서도 조망하였다. 그리고 2년 후인 2000년에 표영삼이 발표한「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교사교리연구』1, 천도교 중앙총부)이 본격적으로 금산의 동학혁명운동을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표영삼은 금산과 진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밝혔다. 또한 금산이라는 지역에 한정하여 조망되지는 못하였지만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논문들도 있다.(배항섭,「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1894년 농민전쟁연구』4, 한국역사연구회, 1995; 배항섭,「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지도부의 성격」,『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7; 박찬승,「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박찬승,「1894년 농민봉기와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드디어 2002년 금산과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이병규, 『금산·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병규는 이 논문을 통해 금산과 진산지역의 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장기포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금산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농민군은 향리나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금산의 경우 보부상이 반농민군의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고, 더 나아가 금산지역의 보부상은 향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뿐 아니라 진산농민군은 서장옥의 관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금산봉기가 전봉준과 호응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제1차 농민전쟁 기간 동안 충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민군들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 금산과 진산이 충청지역 농민군 활동에 있어서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에 이어 이병규는 이듬해인 2003년에 1894년 10월과 11월에 김개남의 금산과 진산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전북사학 26집에 실린 「1894년 10월~11월 금산·진산에서의 김개남과 일본군의 활동」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학계적인 동향뿐 아니라, 금산 자체적으로도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금산에는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있고, 2006년부터 매년 금산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학술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금산의 의로움의 정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6년 11월에는 ‘금산의 의로움의 정신을 구현하는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 5월에는 ‘금산동학혁명 학술발표회’, 2009년 10월과 2010년 11월, 2011년 11월에는 ‘금산동학혁명 및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의 관심과 꾸준한 학술발표회가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며,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연구하고 지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2. 금산 동학농민혁명 연구쟁점

이미 2002년에 금산동학농민혁명으로 박사학위가 발표되었지만, 금산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러운 점은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거의 매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금산동학혁명과 관련하여 학술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진행된 학술발표회의 발표집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쟁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먼저 2006년에 진행된 학술토론회에서는 4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이화는 동학과 농민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고, 농민군들은 목숨을 걸고 왜 싸웠는지, 그 진행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혁명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학농민전쟁은 왜 일어났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여기서 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비롯하여 진행상황, 의의까지 개략적으로 서술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두번째 주제는 표영삼의 ‘1894년의 금산지역 혁명운동’이었다. 그는 이 발표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최초의 기포지가 금산과 진산이며, 보수 계층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곳도 금산과 진산이라고 힘있게 말한다. 금산의 최초 기포 날짜에 대해서도 기존 학설이 3월 8일 또는 12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3월 8일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집강소 활동기와 10월 소리니재 전투, 최후의 항쟁이었던 대둔산전투까지 끝까지 항쟁하였다고 한다.

세번째 주제인 ‘민족의 자주적 경세가 실학자 양성지 선생’을 발표한 이동복은 금산군지에 기록된 양성지와 관련된 기록들을 바로 잡으면서 양성지의 생애와 양성지가 주장한 바를 서술하며 그가 자주적 경세가 실학자였음을 서술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네번째 주제인 백원철의 ‘초려 이유태 선생의 생애와 개혁사상’은 금산군 출신의 이유태의 생애를 되짚으며, 이유태의 개혁사상을 서술하였다. 이로써 이동복과 백원철은 조선시대의 금산과 연관성이 깊은 양성지와 이유태의 사상이 훗날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동학농민군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어 금산의 의로움의 정신이 구현되었다는 맥락을 서술하였다.

2007년에 진행된 ‘금산동학혁명 학술발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만열은 한국사에서 근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되짚으면서, 동학이라는 종교의 발생배경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국의 근대사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었다. 이 기조강연에서 그가 힘있게 주장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어느 지역보다 제일 먼저 기포하였고 가장 늦게까지 일본군에 항쟁한 곳이 금산지역이라는 점이였다. 다른 지역의 동학군들이 1894년 12월까지 항쟁하였으나, 금산 지역만은 1895년 1월 하순까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발표인 표영삼의 ‘금산 동학도의 초기 기포’는 2006년에 발굴된『금산동도작요내력(금산동도작요내력)』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학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금산 동학도들의 초기 활동을 밝혀낸 중요한 발표이다. 그는 이 자료를 통해 금산 지역에서 최초로 기포한 곳은 제원이라는 점과 기포 날짜가 3월 8일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당시 기포한 상

항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말대로 단순하게 이 기록만을 가지고 혁명인지 민요인지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산동학농민혁명의 초기 기포의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이후의 활동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기존에 이미 활용된 자료들과『금산동도작요내력(금산동도작요내력)』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다만, 필자의 말대로 이 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설명이 전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 같다.

세번째 발표는 신영우의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조사’였다. 필자가 글의 맺음말에서 언급한대로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파악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발표문을 통해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의 특성에 맞춰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문제인식처럼 희생자들에 대한 실상이 조금씩 파헤쳐지게 된다면 퍼즐의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목적의식은 훌륭했지만, 실상을 파악해 내는 작업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확보라거나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네번째 발표는 신순철의 ‘금산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금산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비되거나 보존된 적이 없는 유적지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발표였다. 그는 농민군 집결지와 근거지에 해당되는 유적지인 제월역, 방축리, 대둔산 향전지, 전투지로서 소라니재와 부수암, 삽실재, 솔티재, 잣고개(백령), 지삼티, 그리고 민보군 관련 유적으로 남산공원의 민보군 비석들과 순의단, 민보군 지도자들의 순의비 등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 유적지와 참여 인물들과 유족들에 대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유적들이 방치되고 훼손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유적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유적지의 중요도에 따라 안내판이나 표석이라도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발표문의 아쉬운 점은 실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안내판이나 표석을 세워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군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순례길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관광지로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나 고찰은 학자들만을 불러 모아 놓고 벌이는 학술토론회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진다.

2007년에 진행된 학술발표회는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을 규명하는데 많은 점들을 밝혀냈

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학술발표였다고 판단된다. 먼저 금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한단계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참여 인물에 대한 유족조사와 유적지 조사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세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어 앞으로의 금산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명한다.

2009년 10월에 진행된 ‘제6회 금산동학혁명 및 제4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에서는 양승률과 이동복 두명의 발표자가 심도있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양승률은 금산지역의 의회군에 대한 글로 금산동학혁명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를 갖으며, 이동복은 금산 출신 이유태가 북벌 충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산을 흐르는 당시의 정신이 ‘의로움’이었음을 강조한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양승률은 ‘1894년 금산지역 의회군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양승률은 기존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주로 농민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산지역의 재지유림세력의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서장옥이라는 인물에 대해 강조하면서 부각하였고, 금산의 농민군이 태인의 농민군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봉기하였다는 점, 금산의 재지세력들이 참수한 농민군의 대부분은 진산 방축리에 있던 농민군이었다는 점, 보부상이 주축이 되어 농민군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 논문의 핵심인 의회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금산지역의 재지유림들은 3월 12일 농민군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4월 3일에는 농민군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심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5월경에 농민군에 대항한 의회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의회군은 군사적인 열세로 10월 22일 진산의 부수암 전투와 금산을 전투에서의 패배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금산군에서의 의회군과 동학농민군간의 문제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였다. 이는 동학농민군 연구에 중요한 문제였음을 시사해 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번째 발표는 이동복의 ‘효종의 민족옹지 “북벌정책” 충신 금산인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선생’이다. 이동복은 이 글을 통해 북벌 추진 세력의 산림파 중 송시열이 북벌대신으로 기록되어 왔으나 금산인인 초려 이유태가 북벌충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목적대로 그는 이 글에서 송시열은 사대주의였지만 군사적 북벌은 반대하였으며, 결국 북벌에 대한 참여를 약속하고 정권을 장악했으나 결국 가면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유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정의 북벌 대의에 희망을 갖고 북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북벌의 충신이 바로 이유태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논지를 펼치고 있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이유태가 주장한 기유봉사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면 한일합방이라는 역사적인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2010년 11월에는 이동복, 성주현, 정을경, 홍제연 4명의 발표자가 '제8회 금산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의 발표를 맡았다.

먼저 이동복은 전봉준장군이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동학혁명의 중심에서 발전시킨 최고 지도자라는 논거는 오류라는 점, 전봉준장군이 자력으로 봉기하지 못한 사연과 전봉준장군의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 봉기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학계에서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봉기와 서장옥과의 관계 실상을 밝히며, 금산지역 연합 동학농민혁명군의 남접지원은 남접 봉기부터 우금치전투까지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금산이었으며, 그 혁명의 주인공은 서장옥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봉준을 최고의 지도자로 꼽는 것은 오류라는 점이다. 덧붙여 그는 광화문복합상소에서 궤사사건이 무력으로 간당을 소탕하자는 서장옥과 남접의 학계의 추측은 추측이 아니라 서장옥의 행동이며, 전봉준이 민란에서 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혁명의 진행까지 모두 서장옥의 지도를 받고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성주현은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금산지역의 동학은 서장옥과 조재벽이 관할하였다는 점, 금산지역 동학군은 연합전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금산지역 동학군은 1차기포에서는 연합전선을, 2차기포에서는 금산지역으로 무대로 활동하였다는 점, 금산지역 동학군은 민보군과 가장 처절하게 투쟁하였다는 점, 금산지역 동학군은 무엇보다도 동학혁명의 첫 기포와 마지막 항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일제강점기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정을경의 발표였다.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조선시대 의로움으로 이어져 활동화되었고, 또한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3.1독립만세운동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주제였다. 이 발표의 문제의식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금산지역을 간과했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금산지역민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파악으로 인해 금산지역인들의 독립정신이 고찰된다는 것이었다. 발표문을 통해 금산의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들이 파악되었다. 금산의 3.1운동은 3월 23일 금산읍장터와 남산 밀, 25일과 26일 제원면 제원리, 28일 금산읍장터와 서대산, 3월 31일 복수면 곡남리와 진산읍내에서 9일이라는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금산의 3.1운동의 특징은 전라북도에서 거의 가장 적은 7차례의 시위횟수였으나 많은 주도층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강도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3.1독립만세운동이 종교인들이 주도했다는 점과 다르게 금산은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마무리한다.

마지막 발표는 조선후기 금산 유학의 흐름과 사족활동이라는 홍제연의 발표였다. 금산의 동학농민혁명과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금산 사람들의 정신을 조선시대까지 거슬

러 올라가 의로움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금산은 전라도 전주목에 속해있던 금산군과 진산군 두 고을이 대응은 아니었으나 금산의 김신과 진산의 진순도가 공을 세우면서 주로 승격하였다. 이 둘 모두 고려시대부터 토착세력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선 초 금산지역은 성리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유학자 율정 윤택, 윤구생 부자, 야은 길재가 우거한 곳이다. 또한 이들의 학맥을 이은 후학들이 배출되어 율정의 고을로 이름을 떨쳤으며 국가 전환기에 의로움을 실천하는 선비들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토착 성씨와 혼인으로 연결된 이거성씨들이 향촌사회내에서 입지를 넓혀 나가게 되었다. 필자의 발표가 조선시대의 금산지역에 해당되었던 진산과 금산 중 금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조선시대의 금산지역의 유학의 흐름을 통한 사족활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2011년 11월 말에 열린 ‘제9회 금산동학혁명 및 제7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는 김양식, 이동복, 백원철, 송부웅 4명의 발표자가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집중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던 의미있는 발표자리였다.

먼저 첫번째 발표인 ‘동학농민혁명사에서의 금산의 역할과 위상’은 그동안 ‘금산 동학혁명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어 온 내용과 연구성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산의 역할과 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이미 발표된 내용들에 대한 정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하였지만, 맺음말을 통해 금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하였던 것은 서장옥 관할하에 있었던 진산, 금산, 고산, 옥천, 영동, 황간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조재벽 등을 중심으로 연합부대를 구성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마무리를 한다.

두번째 발표는 이동복의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의 중심은 서장옥선생과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이 그 중심에 있었다.’였다. 제목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그는 발표문 안에서 강력하게 두가지 사실을 주장하였다.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의 봉기는 그동안 알려진 3월 20일 무장봉기가 아니라 3월 8일 금산지역에서의 봉기가 최초의 동학농민혁명의 봉기라는 점이다. 또한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는 전봉준이 아니라 서장옥이라는 점이다. 금산의 동학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발표 등을 통해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지금까지의 위치로 밝혀 놓은 이동복의 주장은 자료를 직접 밝혀 논지를 굳혀나갔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점이 많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이같은 두가지 논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의 논지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고 어느 정도는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있지만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그가 그동안 주장해 온 사실들이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학계에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그가 그동안 발표해 온 발표문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그 발표문을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학계에 발표하고 논문을 등재지에 게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고 자료에 입각한 주장들만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올해 7월에 정읍시에서는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자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200여명을 비롯하여 발표를 맡은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동복의 발표와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들이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쟁점과 그들이 주장하는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발굴과 기존의 자료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세번째 발표는 금산지역 출신인 남은 정인조, 도곡 양응춘, 오은 오국헌을 통해 금산지역의 충절지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금산의 의로움의 정신을 밝히는 의미있는 발표였다. 백원철은 먼저 ‘어은 오국헌 선생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당시 재야사대부였던 오국헌이 남긴 문학작품을 통해 17세기 조선 중기의 재야사대부의 삶의 양상을 유추했으며, 아울러 재야사대부 문학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임란 의병장이었던 도곡 양응춘의 생애와 선초 충절의 인물 정인조의 생애를 통해 금산지역의 의로운 정신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음을 밝혔다. 다만 정인조에 관련된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 제시로 끝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뿐만 아니라 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송부웅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 우리 민족의 상고사의 왜곡 날조와 말살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역사, 즉 국사를 아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도식화된 사례들이 나열되어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논지를 전개해 나갔더라면 논지의 흐름이 더욱 강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금산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발표의 큰 핵심은 2개였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금산이 처음 봉기지였다는 점과 동학농민혁명의 주도인물은 금산출신의 서장옥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금산출신 인물들에게 전승된 의로움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3. 금산 동학농민혁명의 과제와 방향성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분석하고 연구쟁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점

은 학계의 관심이 빈약하다는 점이였다. 이는 자료적인 한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발표된 2002년의 박사학위논문에도 더 진전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2006년에 발표된 표영삼의 '금산 동학도의 초기 기포'라는 논문이 던져주는 무수한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발표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서 금산 동학도들의 초기 활동을 밝혀냈다는 큰 의미를 갖음과 동시에 이 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기존의 자료들에 입각하여 전개된 주장들을 반박하기에는 자료적인 한계를 갖는 점이다. 필자는 또한 이 자료만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에서 주장하던 쟁점들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분명한 점은 철저하게 더 많은 자료들을 놓고 당시의 상황들 속에서 철저하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시작 날짜와 장소, 또한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한 많은 것들이 기존의 주장들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봉기가 고부의 농민항쟁과 성격이 같은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전봉준 등이 발의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부각되는 인물들과 연결되어 무장기포에 호응하는 봉기였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는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전쟁의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소중한 자료에 입각한 이 논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학회나 등재지 논문에 게재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할 수 있겠다.

또한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주장되고 있던 전봉준이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본바탕은 전봉준이 서장옥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입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주장되는 부분도 힘을 받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기존의 학설을 꼼꼼하게 반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체화된다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서장옥이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최초로 주도하였다는 점이 확대되려면 금산의 당시의 동학포교상황을 비롯한 금산지역의 사상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조선시대부터 금산출신의 인물들에 대한 의로움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은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금산지역의 사상적인, 특히나 동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망되어야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서장옥에 대한 인물연구도 중요하지만 서장옥과 연결된 금산과 진산에서 활동한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조재벽, 박능철, 최사문, 최공량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소상하게 밝혀지고 자료적인 한계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사 연구라는 것이 자료가 없다면 도저히 연구가 진척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더 많은 주제들에 접근하여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기념사업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이 그대로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든, 군에서 주관을 하든 기존에 발표된 것들을 주제에 맞춰 재정리하여 단행본의 형식으로라도 발간되는 의미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계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무엇보다 금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사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년에 한번 개최되는 학술발표회보다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라는 생각을 해 본다.